

AUTHOR 권문상

TITLE 칼빈신학적 양성 연합

IN 개혁신학

vol.21 (2009): 11-31

전반의 신학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토착화 신학, 해방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여성 신학, 포스터모더니즘의 신학 등 수많은 신학들이 나타나 현재 신학계는 매우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의 신학 사정은 사이버 기독교 신학이 교파수 만큼이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그 신학자들의 신학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세계 신학계를 다니면서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학교가 나의 마지막 봉사지로 생각하여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신학을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을 위시하여 다른 모든 교수들도 다 같이 그러한 생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 최선의 학창생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칼빈신학적 양성 연합

An Idea of the 'Unity in Two Natures' in Calvinistic Christology

권문상
(조직신학)

서론

1. 칼빈의 기독교론적 구조

- 1.1. 주목받는 그리스도의 인성
- 1.2. 칼빈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2. 칼빈의 속성 교류론

- 2.1. 성경에 나타난 양성 교류의 실제
- 2.2. 칼빈의 양성 교류론

3.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

- 3.1. 신성의 제한적 발현과 그것의 온전한 실재
- 3.2. 완전한 인간 안에서의 양성연합

결론

서론

이 글은 지난 호에서 다룬 “칼빈의 기독교: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원리”¹⁾ 논문의 후속편으로서, 위 논문에서 다음 연구 주제로 약속한 칼빈신학적 양성 연합에 대해 논의한다. 칼빈이 기여한 구원론적 기독교에 입각한 양성연합론을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다. 물론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모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호의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칼빈이 양성연합의 유비로 제안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연합’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칼빈의 원래 의도를 추적해나가면서 올바른 양성 연합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칼빈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개혁파 신학이 갖는 양성론에 있어서 이 ‘연합’의 어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교를 적합한 기독교적 형태로 인정하면서(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호의 논문에서 칼빈의 공헌을 밝힌 바 있다) 칼빈이 유비로 제안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양성 연합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칼빈이 그의 구원론적 기독교에서 양성의 실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만큼 우리가 그의 의도가 함축된 양성 연합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교에 기초한 양성연합 논리는, 분명 현대의 케노시스 기독교, 특히 맥킨토쉬에게서 발견되는 기독교와 일정부분에서 유사하게 전개하였다²⁾ (이 논문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다룰 수 없음을 독자에게 양해 구한다. 이 기독교를 포함하여 칼빈과의 심도있는 기독교적 대화를 위해서

는 다음 기회로 마를 것이다.) 이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 확보에 큰 강조를 둔 칼빈의 기독교적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에 칼빈의 속성교류론을 분석한 다음,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교에 기초한 양성 연합 원리를 재발견하여 개혁파적 양성 연합론을 추론해낼 것이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교가 가져다준 다소 부실한 양성 연합론의 틀이 극복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1. 칼빈의 기독교적 구조

칼빈이 구원론적 기독교를 전개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형이상학적 양성론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게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의 오심을 구원론적 기초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스콜라주의적 기독교가 실제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구원론적 의미에 기여를 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신 역사적 예수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한 것을 기억한다면, 칼빈은 중세의 기독교적 결함을 답습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칼빈이 이러한 전통적 기독교의 약점을 극복하였다는 측면에서 구원론적 기독교 작업은 옳다고 본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부분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실제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즉,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제일 먼저 주목하였다.³⁾

1) 줄고, “칼신의 기독교: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원리”, *개혁신학* 20, (용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8), pp. 41-66.

2) 줄고, *비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pp. 263-438.

3) Calvin, *Institutes*, 김종홍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II, xii, 1.

1.1. 주목받는 그리스도의 인성

칼빈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고서도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거의 주목할 정도로 구원론적 결정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인간이 아니면, 구원론적 의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아서였다. 우리의 죄 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아폴리나리스의 거짓 인간 예수도 아니고, 가현설자들이 말하는 인간인 척하였던 자도 아닌, 실제의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면서 참 중보자로서의 직책에 걸맞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가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하나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인간임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중보직을 잘 설명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인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우리의 불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 사이에는 그만큼 심대한 부조화가 있다. 사람이 본래대로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처지는 중보 없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기에는 너무도 비천했을 것이다. . . . 바울이 중보를 설명하면서, 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훌륭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사도

는 “하나님이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사람”이라는 말도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대책을 쓰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우리 사이에 두셨다.⁵⁾

칼빈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미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한 인간이어야 한다. 물론 그 인간은 정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체험한 자요, 심지어 시함까지도 받은 자였다(히 4:15). 나아가 우리가 받을 벌을 직접 대신 받아 죽음을 겪으셨고, 우리 죄에 대한 징계의 값을 치루기 위해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얻어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도모하며 그 분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살과 뼈, 신경세포를 가진 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인성을 지닌 자인가? 그가 하나님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모양만 가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인가? 후자의 경우에는 곧 우리가 언급하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전자의 경우만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위 가현설적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칼빈은 이러한 가현설파인 마르키온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다른 천상의 몸을 지녔다고 믿는 마니교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논박하고 있다.⁶⁾ 여기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지면상 생략하고 칼빈의 글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다만, 우리가 구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마르키온과 마니교의 생각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말할 뿐이다.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시지 않았으면, 대속의 피를 흘릴 수도 없을 것이고, 바울이 빌 2:5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4) 물론 칼빈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이미 그가 다른 지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였기에 여기서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미 필자는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참고, “칼신의 기독교론: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원리”, pp. 48-49를 보라.

5) Calvin, *Institutes*, II, xii, 1.

6) *Ibid.*, II, xiii, 1-2.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완전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분이기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음을 케노시스 혹은 비움의 의미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2. 칼빈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칼빈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반대하는 마르키온과 마니교도들의 기독교론을 논박하기 위해 빌 2:6-8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아마도 그리스도가 실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유용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다음 글에서 발견한다.

내가 이미 입증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마르키온과 마니교도들은] 너절한 궤변을 쓰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빌 2:7-8) 바울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마르키온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한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의 미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한다.

이상의 글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칼빈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바울의 빌립보 서신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음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칼빈은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자기를 비워”(에케노센)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적 본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따라서 그리스도가 비웠다고 말할 때 바울이 의도한 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형적인 면들, 즉 그의 영광을 인간에

게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⁷⁾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움으로 수치를 드러내었으며 이는 곧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비록 그가 신성을 버릴 수는 없었지만 당분간 다른 인간이 볼 수 없도록 감추어두어 그의 신적 영광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다.⁸⁾ 기독교강요에서도 역시 칼빈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할 때, 이는 그의 신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취하여 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였다.⁹⁾

칼빈은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설명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리스도가 그의 본래의 신적 영광과 권리 등을 육신의 휘장으로 가렸다고 말하였는가? 구원론적 기독교론을 전개하면서 칼빈이 주목하고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됨인데, 만일 빌 2:7의 에케노센이 신성 자체가 사라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육신의 휘장 뒤에 감추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 자칫 그가 원래 의도한 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됨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이다.

칼빈은 구원론적 기독교론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과 모순되게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음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해석한 후, 칼빈은 곧 이어서 마니교의 주장에 논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재삼 강조하였기에 그렇다. 칼빈은 마니교가 고전 15:47-48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자로 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공기의 몸이라고 주장한 글을 논박하였다. 나아가 같은 본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마니교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간단하게 물리쳤다.¹⁰⁾ 따라서 칼빈은 빌

7)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2:6.

8) *Ibid.*, 2:7.

9) Calvin, *Institutes*, II, xiii, 2.

2:7의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말하고자 함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그의 신적 영광을 감추는 것으로 정의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칼빈이 자칭 가현설주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이다. “사람들을 보아서 그가 그의 신적 영광을 감추었다”¹¹⁾는 그의 말이 그런 오해를 조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인간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칼빈의 전체 글을 본다면, 이러한 의심은 기우에 불과하다. 칼빈은 결코,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인간으로 비쳐지기를 위하여 신적 영광을 감추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빌 2:7을 주해하면서 앞에서 인용된 말을 할 때에도 그는 그 영광이 “감소되지 않게” 감추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¹²⁾ 칼빈이 의도한 바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온전한 신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양성연합의 실재를 확보하려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우리가 칼빈을 변호하려해도, 여전히 질문이 하나 더 남는 것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됨을 강조하고 양성연합의 실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¹³⁾고 말할 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이다. 즉, 그 영광이 ‘감소되지 않게’ 실재한다고 말할 때와 ‘성장하는’ 신성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논문 말미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탐구하지 않겠지만, 양성연합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어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0) Ibid.

11)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2:7.

12) Ibid.

13) Calvin, *Institutes*, II, xii, 1.

아마도 칼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고 신적 영광과 그 신성 자체는 존재하였지만 온전하게 늘(*simpliciter*) 전개되지는 않았음을 믿었을 것이다. 그의 지혜가 자라났다는 증언에서 보듯이(눅 2:40, 52), 마지막 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다든지(막 13:32),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부탁한다든지(마 26:39) 하는 말씀들을 주목하여서일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신성의 온전한 실재와 그 신성이 제한적으로 발현되었던 사실을 실제로 주목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를 풀지도 않았다. 여기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다. 신성의 제한적 발현은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기독교적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칼빈의 양성연합 논리를 그의 전반적인 구원론적 기독교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빈이 생각한 양성의 속성 교류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양성연합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속성 교류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칼빈의 속성 교류론

칼빈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각 온전하게 존재하지만 한 인격 안에서 양성이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서 연합하여 존재한다고 믿었다. 칼케돈 신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양성연합론을 펼치려고 하였다. 이 때 양성연합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각각 온전하게 존재하면서도 한 인격체 안에 연합하여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유비는 유감스럽게도 옳지 않은 것이었다. 필자는 칼빈의 인간 유비가 왜 지지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이미 논의한 바 있다.¹⁴⁾

하지만 칼빈이 양성연합론을 교부들의 속성교류설이나, 루터의 속성교류론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속성교류론을 전개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양성의 실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는데 매우 유력하게 제시한 속성교류론이기 때문이다. 속성들이 각각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양성 각각의 분명한 실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지도 않았고, 한 쪽으로만 전달되어 다른 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를 상실케하는 어려움도 겪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성경에 나타난 양성 교류의 실재

앞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복음서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어떤 때에는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신성을 지닌 분으로 명시되면서 인성을 지닌 분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교부들은 단순하게 양성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호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지배하는 자로서의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보통 인간이 겪는 실제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루터의 속성 교류론이 갖는 한계이다. 신성이 인성에게만 침투하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의 로고스로만 여기게 되기에 그렇다.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양성의 실재를 표시하는 말씀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양성연합을 말하는 구절을 기억하며 양성연합을 교부들이나 루터의 것들과 다르게 생각하였다. 양성의 실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연합을 구하려는 지혜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어떤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신적 행동을 구현하신 것을 읽으며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고 믿었다. 그의 선재성을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요 8:58)는 말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 17)는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가졌다는 말씀(요 17:5) 등에서 그 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말씀들, 이를테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최후의 날을 모른다고 하는 말씀(막 13:32; 마 24:36), 그를 보고 만졌다고 하는 말씀(눅 24:39) 등은 그 분의 온전한 인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양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에서 우리는 양성의 혼합 혹은 한 쪽으로 변한 실체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고전 2:8),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등의 말씀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인성에만 해당하는 어귀들, 피를 흘렸다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손으로 만져진 분이라는 말씀 등이 동시에 나타난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명명한 소위 그리스도의 신인적(*theandric*) 행동을¹⁵⁾ 가리키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두 개의 속성이 교통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또한 인성을 지닌 분이므로 온전한 인간으로 사신 그 분이 하신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온전한 신성을 지닌 분의 행동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록 “하나님은 피가 없으며, 수난 받지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성으로서 하신 일을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

14) 줄고, “칼신의 기독교론: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원리”를 보라. 특히 pp. 61-66을 보라.

15) John of Damascus, *De fide orthodoxa*, III, 19. 재인용. Joseph N. Tylenda,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of Propertie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 no 1, (Fall 1975), fn. 10, p. 56-57.

다.”¹⁶⁾ 신격화된 분의 모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지 그의 양성을 온전하게 지닌 인격 전체의 틀 안에서 양성의 행동을 통합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성의 각각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혹은 한 본성 안에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2.2. 칼빈의 양성 교류론

칼빈은 이상의 여러 성경 말씀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여, 양성의 실재를 확보하면서도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게 하려하였다. 비록 한쪽 본성이 다른 쪽 본성으로 종종 전이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양성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칼빈이 속성교류를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한쪽의 본성이 다른 쪽 본성으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전달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그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에게 적용된다.¹⁷⁾ 양성이 종종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의’ 인격체(‘a person’)를 통해 각기 다른 본성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이러한 속성 교류의 순간에 신성이 파를 흘린다거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성에 속한 것이 때때로 신성으로 “적합하지 않게”¹⁸⁾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속성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언급한다는 것은 ‘때때로’ 속성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칼빈이 전제하였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양성의 실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제를 상상했는가는 문제이다. 아마도 칼빈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루터의 경우 성만찬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일 인격체 안에 신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승천한 후에도 실제로 편재하신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할 때, 그 ‘뺨’은 편재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역시 같은 모습의 인격체였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루터의 성만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칼빈은 그리스도 예수가 신성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지도, 부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편재하지는 않으셨다. 양성연합을 루터식 속성교류에 근거하여 확보할 경우, 그리스도는 언제나 편재하실 수 있었고, 또한 그 신적인 실재는 목마르시기도 하며, 아파하시고, 죽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성연합보다는 양성의 혼합을 의미할 뿐이다. 칼빈에게 목마르시고 아파하시고 죽으신 그 분은 인성을 지닌 예수이시며,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은 아니다.

칼빈에게 속성교류는 양성을 지녔지만 하나의 인격체를 갖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본성이 발현되는 형식이었다. 역사적 예수이지만 그가 신적인 실재를 나타내는 것은 그의 신성이 인성에게 전달된 결과가 아니라(그렇다면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루터식 결론을 얻게 된다.) 그의 인격체에 전달되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지(요 1:18), 신성으로 충만하셨던(골 2:9) 그리스도이지만 그가 온전한 인간적 삶을 살아가신 것은 그의 인성이 신성에게 전달된 결과가 아니라(그렇다면 인간으로 변한 것을[metamorphosis] 말한다.), 그의 인격체에 전달되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타이랜더는 다음과 같이 칼빈의 속성교류론을 잘 요약하였다: “[칼빈이 말하는] 속성 교류는 속성들이 실제로 존재론적 형식을 띠며 교류한다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하나의 본성이 갖는 특징들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본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속성들이 하나의 인격체 혹은 주체에 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⁹⁾ 양성은 그 자신의 특성을 드러낼 때는 존재론적 실재를 표명시켜주지만 한 본성의 실제적 인물이 다른 본성을 지닌 모습을 표출시킬 때에는 존재론적 실재를

16) Calvin, *Institutes*, II, viv, 2.

17) Joseph N. Tylenda, p. 59.

18) *Ibid.*, p. 58.

19) *Ibid.*, p. 64.

나타내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속성의 교류를 칼빈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하였다.

‘인격체로의 전달’을 말할 때 칼빈은 얼마나 양성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속성 교류론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양성연합에 대해 성공적으로 말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양성의 실재를 칼빈만큼 명확하게 확보한 자도 드문데, 연합까지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면 금상첨화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양성연합이라는 주제에 몰두할 때, (칼빈이 인간적 유비, 즉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유비를 사용한 결과, 양성연합론을 성공적으로 펼치지 못한 것을 보아서) 그가 ‘인격체로의 전달’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였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곧 앞에서 우리가 다룬 칼빈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인간됨을 확보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은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신성도 인성과 함께 ‘성장’하였다는 논리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다. 만일 그가 역사적 예수 안에서 신성이 ‘발현되었음’(realization) 제대로 조화시켰다면, 양성의 실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성연합을 성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회피하겠다. 이제 이 주제로 들어가서, 칼빈이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양성연합의 실재를 탐구해 보기로 하자.

3.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

우선, 무엇이 칼빈신학적 기독교인지 말해보자.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원론적 중보자 직책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실재의 대속물로서의 완전한 인간 예수에게서 찾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마르키온과 마니교도들이 천상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를 기독교의 전제로 여기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실례에 나타나있다. 칼빈은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타난 케노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됨을 증거함으로써 이들 이단들의 견해를 논박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양성의 완전한 연합과 그것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양성의 혼합 혹은 변환을 철저하게 무너뜨림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양성의 완전한 실재를 확보하게도 하면서 말이다. 다만 칼빈은 하나의 인격체를 통해서 양성이 교류하는 것으로 속성 교류를 이해하는 것이 자칫 순환 논리를 범할 수 있게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기는 하다. 한 인격체는 곧 양성연합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는 않고, 한 인격체를 전제하고 양성 연합을 논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양성연합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위의 한 가지 약점에 주목하면서 칼빈이 제시하고자 한 양성연합론의 실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속성의 교류론과 직결되는데, 신성이 어떻게 발현되어서 신적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발현되지 않아서 신적 행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때때로’ 그리스도는 신적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위를 걷는다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고, 그의 신적 선재성을 말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말의 때를 모른다든지 겐세마네에서의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기도에서 보듯이 신적 행동이 완전한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칼빈이 언급한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²⁰⁾ 것, 또한 케노시스 개념을 해석할 때 신적 영광

20) Calvin, *Institutes*, II, xii, 1.

이 '감소되지 않고' 실재하였다는 것 등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한, 어떤 것이든 자랄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 하신다"²¹⁾ 주장들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탐구하면 해결되리라 본다.

3.1. 신성의 제한적 발현과 그것의 온전한 실재

칼빈이 언급한 신성의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칼빈이 선택한 '성장'이라는 용어를 모자라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충족하게 채워지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이 구원론적 기독교론을 전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됨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즉,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적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 모든 인간적 한계를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었음을 주목할 때, 그의 신성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한되었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모른다고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신성의 제한을 경험하고 계셨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다. 칼빈이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인성을 특별하게 드러내게 하실 때에는 그의 신성이 "휴식하였다"고 말한 것을 참고한다면,²²⁾ 그 신성이 이 순간에 제한받고 있음이 틀림없다. 신적 본질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그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 신성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의 완전한 인간적 본질이 드러남에 따라 그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가 계셨으므로 그 신성은 당연히 인간이 '되신' 상태

안에서 보존될 뿐"이었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역사적 예수의 인성이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 그 속성이 규제되었다."²³⁾

따라서 칼빈이 '성장'이라는 용어를 택하여 설명할 때,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독자도 혼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됨과 신성의 실재 및 양성 연합을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바울의 케노시스 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역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케노시스 개념을 해석하면서도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히 신적인 영광이 휘장 뒤에 감추어진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신성이 확보될 수 있고 따라서 양성 연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지 말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양성 연합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다룬다면, 우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됨은 충분히 칼빈의 위 논의가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신성이 온전하게 확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실재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성이 '휴식'하였다는 해석, 육신의 '휘장' 뒤에 숨겨 있었다는 것은 신성이 어떤 방식으로 실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 받는다. 나아가,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때로는' 신성이 완전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요구 받는다. 그리고 이 두 설명 요구는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칼빈이 더 이상 이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시 다루어 보자.

칼빈의 위 주장을 요약한다면, 신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실재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 신성이 자동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영국의 현대 케노시스 학자인 맥킨토쉬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는 신성의 실재를 포기하지

21) Ibid., II, xiv, 2.

22) Calvin, *Commentary on the Harmony of the Gospels* vol. 3, Mk. 13:32.

23) 줄고, "칼빈의 기독교론: 그리스도의 양성 연합 원리", p. 55.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그 신성이 발현된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²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성이 어느 모양으로든지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경우,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전한가? 칼빈은 이 주제에 대해 그렇다고 믿고 있었다. 신적 속성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정확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질문에 대해 필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비록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성은 온전하였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속성이 나타내 보여주는 모든 형태를 다 드러내야 비로소 그 속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신성은 반드시 그 신적 행위가 다 드러나야 그 속성을 그리스도가 가진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가 교수이며 목사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그 행위를 길거리에서, 집에서, 식당에서, 아기들과 놀면서, 늘(*simpliciter*) 보여주어야 교수이고 목사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보아, '때때로' 그리스도 예수가 신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가 신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필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원하는 의지에 따라 그 속성이 발현되는 것임을 발견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필자든 그리스도든지 케노시스²⁵⁾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본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우리는 플레로시스라고 한다.²⁵⁾ 칼빈이 신성의 '성장'을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플레로시스이다.

그러면, 문제는 그 신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의 경우 칼빈신학적 판단은, 바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신 예수 안에서 신성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예수의 성장에 따라 그의 신성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안에 온전한 신성도 확보되고, 완전한 인간됨도 증거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의 주제인 양성연합을 칼빈주의적 실체 안에서 성공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를 전제하는 순환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양성연합의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형태는 바로 신성의 실체와 그 제한적 발현 과정을 위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

3.2. 완전한 인간 안에서의 양성연합

이제 독자는 우리가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인간 예수 안에서의 양성의 제한적 발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성연합이 그것이다. 칼빈이 공헌한 구원론적 기독교론이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적합한 기독교론이라면, 우리는 로고스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독교론을 탐구해야 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과 동일한 감정과 이성을 지니고 계셨는지 잘 묘사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히 기독교론적 필수 개념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 예수와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수 안에서 그의 신성이 존재론적으로 실재한다. 물론 칼빈이 강변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역사적 예수 안에 갇힌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신성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신성이 제한적으로 발현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성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신성이 굳이 제한적 양식을

24) 졸고, *비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302-426. 이 글에서는 이 주제를 깊이 다룰 수 없으므로 다음 기회에 칼빈의 기독교론과 현대의 케노시스 개념을 비교할 때 논의할 것이다.

25) cf. *Ibid.*, pp. 330-339.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성이 교차적으로 교류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또한 신성이 인성에 침투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얼마나 적절하게 연합을 확보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의 혼합을 이루어 제 3의 인격체를 만든다든지, 신격화를 낳게 하는 등, 양성연합을 무리하게 상상하여 신학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칼빈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인격을 전제하고 양성교류를 이해함으로써 양성연합을 구상할 때 순환논리에 빠지게 한 오류를 생각하지도 않게 할 수 있다. 바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역사적 예수 안에서 신성이 제한적으로 발현되게 하심으로써 양성은 자연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양성혼합도, 신격화도, 순환논리도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칼빈 신학적 양성의 실재와 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칼빈이 주저하였던 신성의 제한적 발현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를 시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새로운 각도에서의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이라 판단된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을 논의해왔다.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교론을 바탕으로 양성의 실재를 확보하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형이상학적 탐구를 여행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비록 칼빈이 적극적으로 양성 연합을 사색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히 도전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쁘게도, 칼빈이 구원론적 기독교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인간됨을 확보하면서, 두 개의 인격자를 만들게 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메카니즘을 만들어보았다.

우리의 이 노력은 사실 칼빈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즉, 신성의 '성장'과 신성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양성연합을 성공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보고, 칼빈이(그리고 교부들이) 양성연합의 유비로 제안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 비유가 실패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원래 그가 그리려고 하였던 양성연합의 실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신성이 완전한 인간 안에 계시기로 하셨다고 하고, 그의 온전한 인간됨 안에서 그 신성이 발현되기를 원하셨다고 말한다 면 우리는 신성이 '때때로' 발현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성 연합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인간 안에서만 신성이 발현된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연합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공적으로 양성연합을 도출해내었다고 생각한다. 교부들이 제안한 것처럼, 양성이 교차적으로 교류하여 하나의 인격체는 확보할지 모르나 그것은 양성의 혼합을 야기하여 제3의 인격체 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터의 제안에서처럼 하나의 인격체는 확보할지 모르나 그것은 신격화된 존재로서 양성의 실재를 파괴하고 말았으며, 또한 칼빈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양성이 교류한다고 하여 양성연합을 제안하지만, 그것은, 비록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교부들과 루터의 양성연합론을 대체할 성경적으로 충실한 이론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사실 칼빈의 성공적인 '구원론적 기독교론'의 산물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이 기독교론에 근거하여 성경적 증거에 충실하게 할 형이상학적 메카니즘으로서의 양성연합론을 얻어내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의 노력을 감히 칼빈신학적 양성연합론이라고 칭하고 싶다.